

우성타이어

대전지점 신축사옥 준공식 거행

지난 2월 24일 신축기공식을 가졌던 대전시 중구 오류동 소재 대전지점 신축사옥이 공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만에 완공되어 7월 4일 (주)우성산업 김중수 타이어 사업본부 영업이사과 증부권내 대리점 사장단 및 서울 증부지점장 등 다수의 내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준공식 겸 사옥이전개업식을 거행하였다.

연건평 200평 규모의 신축 대전지점 사옥은 기업이미지 통일에 따른 전국 매장통일계획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주)우성산업 타이어부는 대전지점 신축사옥의 준공개업에 따라 증부권의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급증하는 차량대수와 자동차문화에 맞추어 타이어 실수요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점토공예강좌 개실

(주)우성산업 여사원 모임인 장미회(회장 오정미)에서는 여사원들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지점토공예강좌를 개설하여 여사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8월 9일까지 계속될 이 지점 토공예강좌는 이 기간동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퇴근후 1시간에 걸쳐 열리고 있는데, 참가 여사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소품 및 실내장식품 제작기법을 익힘으로써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연마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사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한편 사내 동료들에게도 선물함으로써 사내 분위기 쇄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성산업 산악회 청옥산 등정

(주)우성산업 산악회(회장 이상욱)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동해시 소재 청옥산(해발 1403m) 등정에 나섰다.

15일 오후 5시 50분 본사를 출발한 일행은 영동고속도로 사정으로 예정보다 훨씬 늦은 16일 오전 1시 30분에 청옥산 입구에 도착,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후 새벽 5시 20분경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장마비로 인하여 참가인원 23명중 14명만

산행에 참가하였다.

일행은 계속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산행을 계속, 정상에 도착하였을 때는 비와 땀으로 옷과 장비가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상을 정복하였다는 기쁨을 그 어느때보다도 만끽할 수 있었다.

(주)우성산업 산악회 회원들은 이번의 청옥산 등정을 통해 극기심을 기쁨과 동시에 투지를 불태울 수 있었음은 물론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웅장한 자태를 다시금 확인한 후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오후 10시 30분 무사히 귀경하였다.

동부지점 기공식 거행

(주)우성산업 타이어 사업본부에서는 지난 7월 5일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동부지점 사옥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연건평 1,242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세워질 이 동부지점 신축기공식에는 김동철 부사장 겸 타이어 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인지역 대리점 사장단 및 경인지역 지점장 등 다수의 내외인사들이 참석하여 기공에 따른 시삽행사를 가졌다.

동부지점은 회사 이미지 통일계획에 따라 신축되며,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 국 타 이 어

제 2 회 3, 4급 사원교육 실시

'89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제 2 회 3, 4급 사원교육을 지난 6월 8일~6월 24일 5차로 나누어 2박 3일간씩 그린파크 호텔에서 환경변화 대응력 향상과정이란 교육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 (1) 경영환경에 대한 재인식으로 기회 경영의식의 창출
- (2) 사내 communication의 활성화 및 일체감과 미래의식의 증진에 목적을 두어 실시된 것이다.

전사 사내 표준화교육 실시

'89년도 전사 표준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내 표준화교육을 부서별 표준담당 과장 및 담당 사원을 대상으로 6시간씩 1, 2차로 나누어 본사교육장 및 대전교육장에서 각각 실시, 진행중에 있다.

한국공업표준협회 표준화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내용은, (1) 사내 표준화의 개요 (2) 사내 표준화의 추진방법 (3) 사내 표준의 체계 및 심의 처

리절차 등이다.

관촉팀,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순회 활동

영업부에서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부 관촉과 직원과 품질보증부 현지 A/S맨들과 합동으로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순회 관촉을 실시하였다.

본사 4개팀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소매점장을 직접 방문, 면담하면서 여론 수렴과 타이어 전시요령, 타이어 진열대 청결상태 점검, 점포 디스플레이 지도계몽 등 직접 소매점을 방문하여 유대강화 관촉을 실시하였다.

타이어 판매점장 대전공장 견학실시

본사 영업부에서는 '88년도에 1,000여명의 타이어 판매점장을 대상으로 대전공장 견학을 실시해왔는데, 금년도에도 광주지역, 인천지역에 이어 지난 6월 8일부터 전국 7개지역의 타이어 판매점장을 대상으로 공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특히 13만평의 대지 위에 현대식 기계설비로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생산되는 타이어를 직접 보고 세계 제 1의 타이어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판매점장들은 품질 좋은 한국타이어를 보다 많은 고객

에게 권유 판매할 것이라는 결의와 다짐을 하였다.

성형·가황공정내의 휴게실 완공

영등포공장의 성형·가황공정의 휴게실이 지난 7월 6일 완공되었다.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축된 이 건물은 현대식 집기 및 온·냉방기와 커피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사기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편의를 배가하기 위하여 성형 휴게실내에 공중전화 설치를 검토중에 있다.

조합 소식지 「한국타이어 노보」 발행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전달해 주고 조합원들의 소식을 종합하여, 전조합원에게 전달해 줄 「한국타이어 노보」가 6월중 발행된다.

지난 제 27년차 정기 대의원대회시 채택되어 비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된 「한타노보」는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조합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4월중 재정관계 전조합원 공개에 이어 두번째의 획기적 사업으로서 조합원들의 사랑받는 조합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금호타이어

노사 화합의 잔치, 사원단 합대회 열려

사원단합대회가 지난 5월 27일 11시 사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박정구 사장을 비롯한 전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임금협상의 결렬로 빚어진 노사간의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간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89년 임금인상을 쟁점으로 시작된 노사분규는 4~5월 두달 동안 태업과 파업으로 이어져 침체한 감정의 대립을 보이다가 5월 26일 「임금인상 19%」와 「노사분규기간의 임금지급」에 양측이 가까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던 공장이 29일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이날 대회에서 박정구 사장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비운 뒤의 땅이 더 잘 굳는다'는 선인의 말씀처럼 더욱 굳건한 노사화합을 이루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사원들은 회사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술을 서로 권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동안의 서운했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힘찬 전

진을 다짐했다.

감독자 상황대응 리더쉽 교육 실시

생산현장 감독자(주임대리, 주임반장, 반장) 178명을 대상으로 한 「감독자 상황대응 리더쉽 과정」교육이 지난 6월 17일과 24일, 7월 1일 3차례로 나누어 1박 2일 일정으로 내장산 관광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독자의 리더쉽을 배양하고 노동경제지식의 폭넓은 함양을 위해 실시된 본 교육은 김남현 교수(대구 계명대 경영대학장)의 「상황대응 리더쉽 과정」주제강연을 필두로 조재욱 교수(전남대 경영학 교수)의 「국내의 경제전망과 우리의 현실」, 박철호 교수(순천대 경영대학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등이 강연되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인 오병교씨의 강의로 '노동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으며,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감독자상을 위한 분임토의도 실시되었다.

새 노조위원장에 김계수씨 당선

배형수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따라 새 노조위원장 보궐선거가 지난 7월 1일

광주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입후보자 5명이 경합을 벌인 이날의 선거 결과 기호 5번 김계수씨가 2차 투표자 1,697명중 936명의 지지를 얻어 새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김계수씨는 품질관리과 소속으로 13년째 근무중인 베테랑 사원으로서 3번째 입후보하여 뜻을 이루었다.

김영택 반장 전국 제안왕으로 선정돼

제2회 전국 제안활동 발표대회에서 당사의 김영택 반장(곡성공장 제조과)이 금상을 수상, 윤생진 주임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 제안왕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능률협회와 서울신문사 공동주최로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방일양상대학(해상세미나)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에서 참가한 36개 업체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5개 업체가 최종결선에 진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지난 한해 동안 총 2,180건의 제안제출로 '88 사내제안왕으로 뽑혔던 김영택 반장은 이번 대회에서 제안왕이 되기까지 제안에 대한 집념과 노력을 수기형태로 진솔하게 발표하여 많은 감명을 주었다.